



강진 김명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순천시 '지속가능 교통 도시 평가' 최우수기관

인간중심 교통환경 조성으로 4년 연속 수상



순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2018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2015년 '대상'을 시작으로 4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올해에는 인구 30만명 이하 39개 단일도시 중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심주변가 유희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충사업' 우수사례가 '최우수성

책상' 받아 2개 부문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인구 10만명 이상의 7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교통의 안전도 향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교통혼잡비용 절감 등의 지속가능 교통부문 32개 교통지표를 현황평가 60%와 정책평가 40%로 구분 평가하여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한다.

순천시는 전남 동부권의 교통 요충지로서 4개의 고속도로와 3개의 국도가 도심에 관통하거나 우회하여 인근 6개 시군과 연결되어 있으며, 도심내에 통과차량이 많아 시민들의 안전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순천시는 불리한 교통상황의 개선 위해 '인간중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마중택시나 우리동네버스 운행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생활도로의 속도 하향사업과 교통질서 지키기 범시민운동 등을 통한 교통안전도 향상, 포켓주차장 및 주민자율 주차장 설치 등의 주차공유 운동 등이 정책평가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순천시 김재민 교통과장은 "우리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년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간중심 교통환경 조성 노력이 성과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군, 고품질 감 생산 전정기술 현장교육 실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은 물론 과수 인정생산도 기대



보성군은 지난 20일 벌교읍 징광리에서 거점농가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단감 전정교육 및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과수 전정·전정의 기초가 되는 단감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

하고 전정기술·병해충 방제·겨울철 과원관리 등 고품질 감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교육 및 농업인과 집의응답을 통해 과수 재배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 과수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과수 전정은 친환경 고품질 과실 생산과 병해충 사전 예방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작업으로 감나무 전정교육을 통해 과원 관리를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무의 세력과 결실량을 조절하여 해거리 방지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

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전정기술 습득은 고품질 과실 생산에 큰 영향을 주므로 앞으로도 주요 과수 전정시기에 맞춰 전정기술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밝혔고, 또한 2019년에도 과수 화상병 및 자두곰보병 등 금지병해충의 사전예방 및 방제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보성군은 참다래, 감, 배 등 총 773종가 418ha에서 연간 총 조수입 229억 원을 올리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여수광양항만공, 여수 연안·엑스포여객선터미널 본격 운영

여객선터미널 시설개선 등 활성화 노력 추진

그동안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운영해 오던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과 엑스포여객선터미널을 내년부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운영하게 된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정부와 해운조합간 2개 터미널의 위탁용역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공사가 직접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앞서 공사는 지난 7월부터 크루즈부두, 국제여객부두, 연안여

객부두 등 여수항의 항만시설을 정부로부터 인수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공사는 2개 터미널의 본격 운영에 앞서 노후시설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먼저 이날부터 연안여객선터미널 승선로, 엑스포여객선터미널 임출국장 확장, 모성보호실 설치 등을 시작으로 비가림시설, LED 조명 교체 등 예산소요가 큰 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홈페이지에 여객선터미널 메뉴를 신설하고 운항정보와 여객선사 정보를 제공해 여객편의를 도모기로 했다.

윤동운 여수시업소장은 "다른 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부산항, 인천항의 여객선터미널을 벤치마킹했다"며 "전남도 여수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여수항이 국제적인 여객항, 남해안 관광중심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승호 기자

2018 꿈 키움 오케스트라 연주회 개최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아동 45명 구성



합평군, 일반수도사업 운영평가 최우수기관

합평군이 환경부가 실시한 2018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실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발전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실태 평가는 수도법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수도 서비스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5개 분야 3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환경부는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합평=김광춘 기자

아동친화도 순천시가 '2018년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최근 문화건강센터에서 아동 및 학부모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사단법인 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 순천지부가 주관한 이번 연주회는 음악을 접할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클래식 음악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8월 창단되어 그동안 꾸준히 연습을 해왔다.

총 3부로 진행된 이번 연주회는 먼저 꿈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연주를 시작으로 시민 오케스트라의 합동연주회로 진행되어 참

석한 시민들과 학부모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지역아동센터 내 아이들 45명으로 구성된 꿈키움 드림 오케스트라는 단순한 연주를 넘어 아이들의 꿈을 키우며 민선7기 새로운 순천의 핵심가치인 포용과 혁신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꿈 키움 오케스트라단을 이끌고 있는 문운천 단장은 "앞으로 꿈키움 드림 오케스트라가 아이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며 "28만 시민의 공유문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전남개발공, 도시개발사업 추진위한 양해각서 체결

광양을 일원 90만㎡ 규모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추진



광양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전남개발공사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전남개발

공사는 광양을 일원에 총사업비 약 4,500억 원을 투입해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포함된 90만㎡ 규모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광양을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적 지원하게 된다.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오는 2019년 1월중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고, 대상지선정과 개발계획수립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관련 부지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이번 전남개발공사 간 도시개발 양해각서 체결이 명품택지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광양읍권 인구 10만 달성과 30만 자족도시 건설의 기를 마련으로 시민행복 실현에 다가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권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번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점검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권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